

세계식량가격지수 5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치이나 전년대비 2.0% 하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9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70.3포인트) 대비 1.2% 상승한 172.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상승해 3월 잠시 주춤더니 4월 이후 다시 올라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8년 6월 이후 최고 수치이나 전년대비 비교해서는 2.0% 하락한 수준이다.

유제품·곡물·육류는 상승했으며, 유제품, 설탕은 하락으로 유제품이 전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곡물은 소폭 상승했다.

유제품은 2019.4월(215.0포인트)보다 5.2% 상승한 226.1포인트 기록했으며, 유제품 가격은 연초 대비 24.2% 상승, 5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는 치즈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

한 것이며, 타 유제품의 가격은 1월 수준을 상회했다.

또한, 가금으로 유류 생산량이 감소한 오세아니아의 수출 가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요구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의 유류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 또한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

곡물은 지난 4월(160.1포인트)보다 1.4% 상승한 162.3포인트 기록했으며, 곡물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른 옥수수 가격이 급등에 기인했다.

반면, 밀 가격은 양호한 공급량, 적절한 수출가용량이 전망되어 전월대비 하락했다.

쌀 가격은 3개월 연속 안정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쌀미 가격 상승분이 다

른 쌀 시장의 하락분에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육류는 지난 4월(160.8포인트)보다 0.3% 상승한 170.2포인트 기록하고 돼지고기 가격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강한 수입 수요로 계속 상승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의 기록적인 수출량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 또한 강하게 뒷받침되어 상승했으며, 가금류 가격은 시장의 수급균형이 반영되어 안정세를 유지했다.

반면, 쇠고기 가격은 4월 기록한 역대 최고 수치에서 하락했으며, 이는 수출 공급량 증가가 반영됐다.

하락 품목군은 유지류의 경우 지난 4월(128.7포인트)보다 1.1% 하락한 127.4포인트 기록했으며, 유지류 가격 하락은 주로 팜유가격 하락에 기인했다.

반면,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 가

격은 소폭 상승했다.

팜유 가격 하락은 주요 수출국의 대규모 재고량 및 팜유(미네랄유) 가격 하락에 따른 압력 때문이다.

대두유 및 해바라기유 가격은 국제 수입수요 증가로 인해, 유채씨유 가격은 유럽연합의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라 각각 상승했다.

설탕은 지난 4월(181.7포인트)보다 3.2% 하락한 176.0포인트 기록, 최근 설탕가격 하락은 주로 설탕 최대 생산국인 인도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약세로 인해 설탕 생산자들이 시장수수를 예탄을 대신 설탕으로 가공하면서 설탕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8~19년도 브라질 설탕 생산량(금년 3월 종료)이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가격 하락세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였다.

/김영태기자

농산물 수급안정 '고군분투'

농식품부, 채소산업발전방안 논의 위해 T/F 구성·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하는 채소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6월 10일부터 채소산업발전기획단(T/F)을 구성·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단은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이 단장을 맡고, 생산·소비경향 분석,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의 3개 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 10일에 업무담당자·학계·업계·생산자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1차(Kick-off) 회의를 가졌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맛벌이 가구 증가 등 편의를 중요시하는 소비경향 확산에 따라 신선채소류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변화에 대응 없이 농산물의 관행적인 재배가 지속되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격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성적 공급과잉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기획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생산·소비경향 변화에 따른 신선채소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신선채소 품목별 소비실태와 생산구조상 공급과잉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김창환 연구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육류가 신선식품보다는 가공 식재료와 편의식품 등으로 구매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신선채소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수급안정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는 "정부·지자체·생산자 등 시장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장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서 생산자가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로컬푸드·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고정가격으로 거래하는 유통경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채소 수출이 국내 과잉 물량을 밀어내기 형태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수출국의 수급상황 분석을 거쳐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기획단은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심층적 토론회를 거쳐 채소산업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LX, 공간정보 기업의 '국제표준 안내자' 자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하)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표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표준 안내자' 역할을 자처한다.

LX는 11일, 전주 본사에서 OGC(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 Open Geospatial Consortium)국제표준 도입과 국내 공간정보 단체표준 개발을 위한 단체표준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공간정보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LX가 추진하는 단체표준기 관 등록 계획을 알리고 산·학·연의 공간정보 전문가 10명을 단체표준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동일 산업군의 공동이익을 위해 제정하는 표준으로 국내 공간정보 분야는 OGC 국제표준을 영어문서로 안내하고 있을 뿐 별도의 단체표준은 없는 상태이다.

LX는 공간정보 민간분야의 국제표준 적용 활성화를 위해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OGC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해 국문 무료 서비스와 함께 단체표준 개발을 할 예정이다.

최창하 사장은 "민간 기업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2017년부터 ISO국제표준을 국가표준 개발·고시를 지원했으며, 표준개발 이외에도 공간정보표준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공간정보표준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최근 군산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세요"

전북농협,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 총력 대응... 군산항 출입국자 대상 홍보 활동 전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지난달 북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인 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11일 군산항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삼재집), 농협사료군산바이오, 농협목우촌김제공장과 협업하여,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전단지,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홍보에 주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가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으며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재도 본부장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인은 ASF 발생국을 방문 시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과 축사 내의 소독,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에 ASF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양돈 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방역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돼지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ASF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닦개 동안 농장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며, "여행객은 해외에서 돼지고기가 포함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올해 8월 28일 개최되는 농식품부 주관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과정을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과정은 금년도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 추진계획 등 농촌지원사업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그동안 본선 대회 각 분야 금상 수상 마을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도 모색해볼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간 중 하루는 2017년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에서 소득·체험 분야 금상을 수상한 임실군 치즈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우수사례 강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잘사는 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한편, 농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는 주민주도의 자율적이고 참

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장려하여 활력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마을의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다.

6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표어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 예선 등을 거쳐 추천된 마을을 대상으로 경연과 평가를 한다. 대회에 참가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아름다운 농촌만들기의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 분야별 평가순위에 따라 금상·은상·동상 등을 시상한다.

교육원 서해동 원장은 "활력 있는 농촌과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행복마을 만들기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농촌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